

중소도시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 춘천시와 부천시를 사례로

The role of public sector to develop animation industry in small and medium cities. : A case study of Chuncheon City and Bucheon City

이수진(서울대학교 지리학과, woopee1@snu.ac.kr)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중소도시에서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증대라는 측면에서 문화산업을 도입하고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중소도시에서 문화산업도입을 도입하고 육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역할변화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에 애니메이션 산업을 도입하여 육성해온 춘천시와 부천시를 사례지역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화산업육성에 있어서 운영조직, 재원, 산업기반조성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밝히고, 이를 통해 문화산업을 도입하려는 중소도시의 지역발전전략에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제작사를 중소도시로 유치하였으며, 제작사는 제도적 지원의 혜택을 받고자 이전해 왔다. 제작사들은 사무환경이나 제도적 지원의 측면에서는 만족하고 있었으나, 산업기반이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 생산 활동을 하면서 주로 서울과의 기능적 연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생산연계에 있어서 대면접촉과 긴밀한 생산연계의 필요성, 인적 자원 및 문화콘텐츠 소비시장의 서울 편재로 인해 서울과의 지리적 근접성에 따른 한계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업기반 형성의 미약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인력, 재원, 산업기반마련의 세 가지 측면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노력은 애니메이션산업과 관련된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인력조직에 있어서 나타나는 전문성의 한계, 재정지원에서 나타나는 효율성의 한계로 인해 점차적으로 민간의 참여가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소도시의 애니메이션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시작되었지만, 자치단체 주도의 민간참여 형식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민간에 의한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변화, 발전되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은 점차적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율성을 수용하여 애니메이션제작사를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때 지역 문화산업의 발전과 이를 통한 지역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